
수강신청 50%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04. 30 (금)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총학생회 '오늘'

목 차

1. 개 요
2. 응답 인원 현황
3. 수강신청 50%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 만족도 조사
4. 수강신청 사전테스트 (장바구니 테스트) 설문조사
5. 수강신청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 추천 비율 설문조사
6. 기타 의견
7. 결론

1. 개요

2021-1학기부터 수강신청 방식에 "수강신청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여석보다 신청 수가 많아 이관되지 않는 과목들에 한해 여석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천으로 이관시키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10월 정보통신처에서 진행된 수강신청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설문조사 설문 기간이 2주로 다소 짧았고 응답 인원이 총 재적생의 2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답인원 중 찬성률은 5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적생의 약 11%만이 해당 수강신청 제도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인식하고, 수강신청 50%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 변경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총 2,241명의 학우들이 응답에 참여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약 81.18%가 추천 이관제에 매우 불만족 혹은 불만족이라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추첨으로 인해 수강신청의 경쟁률이 이전보다 높아짐’, ‘추첨 이관으로 인해 본인이 계획한 우선순위에 따른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음.’ ‘원하는 강의 혹은 한 과목도 이관되지 않았음.’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 결과 응답자의 약 66.44%가 ‘수강신청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 폐지’ 혹은 ‘현재(50%)보다 낮은 비율의 추천 이관’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그 이유로 실제 수강신청에서의 과도한 경쟁, ‘추첨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낌’, ‘학내 전반적인 수강신청 구조는 기존 선착순 제도가 더 적합함’ 등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총학생회는 위 결과를 토대로 학교본부에 [수강신청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 변경을 요구합니다. 본부의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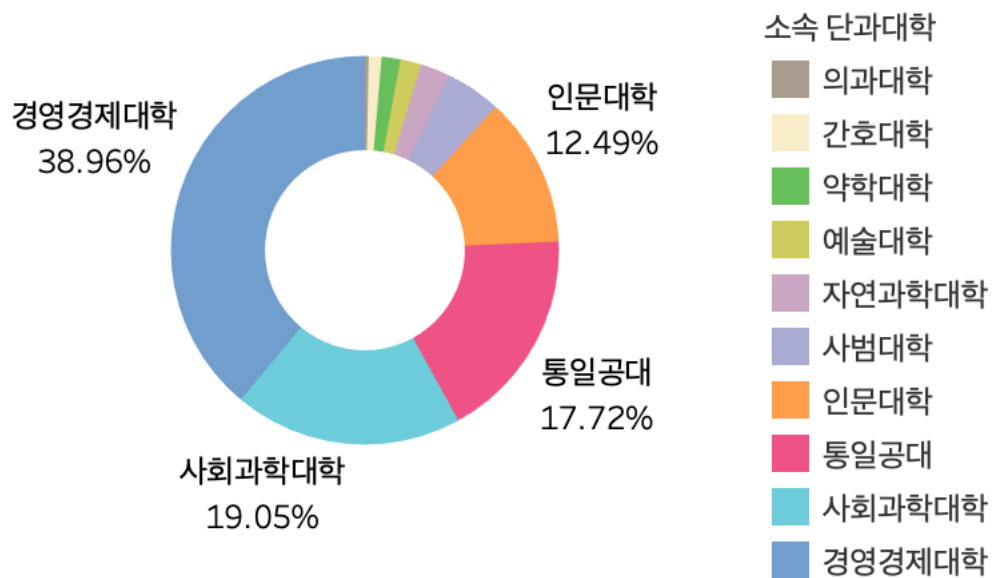
본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해 주십시오.

2. 응답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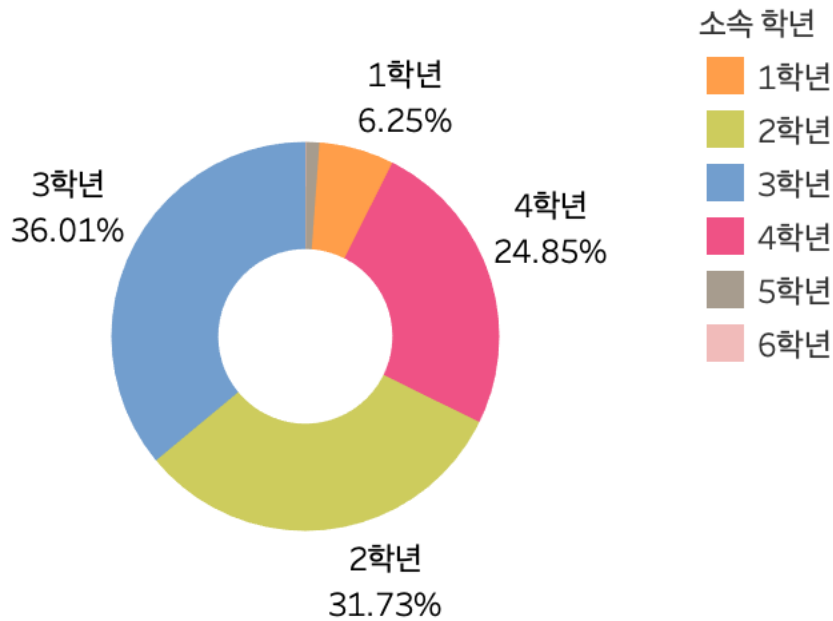
수강신청 50%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 설문조사]는 2021-1학기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241명의 학우분들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 응답 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설문조사 응답 인원 현황

1) 소속 단과대학별



2) 소속 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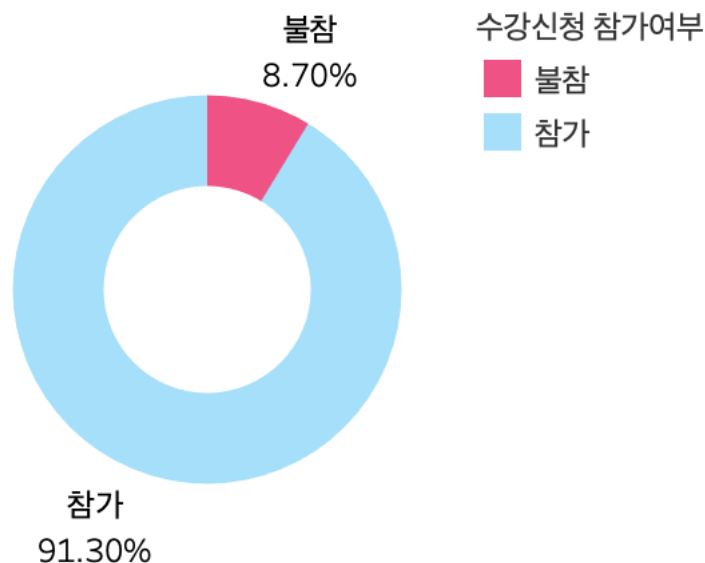
[요약]

수강신청 50% 장바구니 추천이관제 만족도를 비롯해 수강신청 이전 진행하였던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 그리고 적절한 추천 이관제 추천 비율에 대한 학생 인식을 알아보고자 3가지 설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총 응답 인원은 2,241명이며, 수강신청 50%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 만족도 조사 및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 설문조사는 해당 수강신청과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를 진행한 인원에만 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각 설문조사별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수강신청 50%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 만족도 조사

2021-1학기 시행된 수강신청 50%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변경된 수강신청 제도의 참가 여부를 알아본 후 만족도와 그에 대한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을 구성해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총 응답 인원은 2241명의 학생이 설문을 참가하였으며 그 중 수강신청 추천 이관제를 경험한 204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특정 만족도를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만족, 보통을 선택한 인원’과 ‘불만족을 선택한 인원’으로 설문 집단을 구분하여 선택 이유에 대한 설문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1) 2021-1학기 수강신청 참가 여부 (수강신청 50%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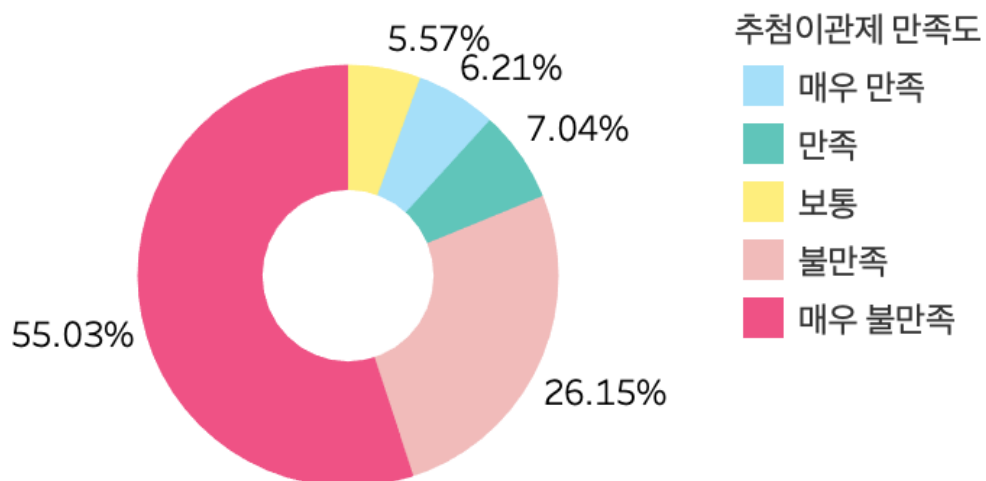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총 참가 인원 : 2,241명

	비율(%)	인원(명)
참가(수강신청 참여)	91.3	2,046
불참(수강신청 미참여)	8.7	195

[요약] 총 2241명의 학생들 중 대부분의 학생들(91.3%)이 2021-1학기 수강신청 50%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에 참여했다고 응답했습니다.

2) 수강신청 50%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총 참여 인원 : 2,046명

	비율(%)	인원(명)
--	-------	-------

매우 불만족	55.03	1,126
불만족	26.15	535
만족	6.94	144
매우 만족	6.21	127
보통	5.57	114

[요약] 대부분의 학생들(81.1%)이 변경된 수강신청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했으며 그 외 13.2%의 학생들이 만족, 그리고 5.6%로의 학생이 보통을 선택했습니다.

3) 만족 혹은 보통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응답: 385개, 복수응답 가능)

[설문조사 결과]

만족 혹은 보통을 선택한 경우 가장 많은 학생이 ‘수강신청의 부담이 줄어들었음’(198명)을 선택했고, ‘해당 제도를 통해 원하는 수업이 수강 가능해짐(158명)’ ‘추점으로 인해 수강신청의 경쟁률이 이전보다 낮아짐.(127명)’, ‘트래픽이 과도하게 물리는 것이 줄어들었다고 느낌(93명).’이 각각 그 다음의 이유로 선택되었습니다. 기타의견으로 만족을 선택한 다수의 학생들이 본인의 장바구니 항목이 전부 추첨이 되었기에 이번에는 만족을 선택했지만 추후에 본인의 과목들이 추첨 되지 않는다면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추첨제도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외의 기타의견으로는 ‘재미있다’ ‘변경된 수강신청에 대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4) 불만족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응답: 1661개, 복수응답 가능)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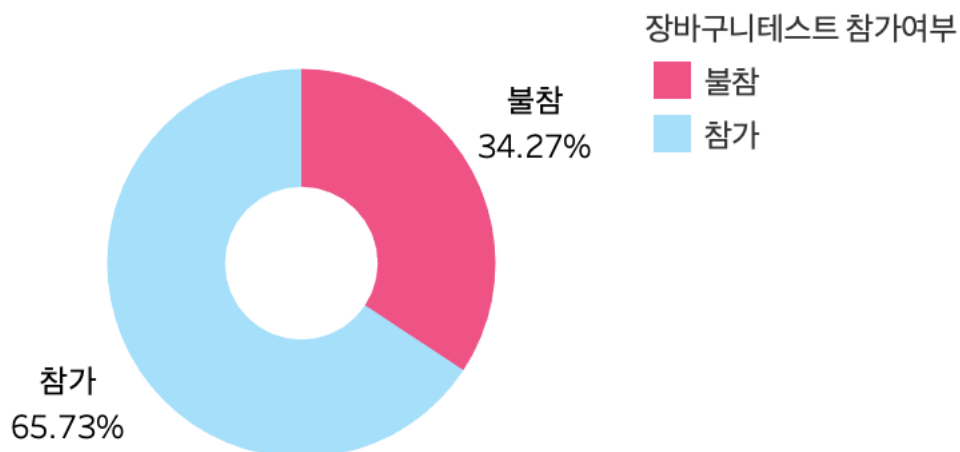
불만족을 선택한 경우 가장 많은 학생이 추천으로 인해 수강신청의 경쟁률이 이전보다 높아짐. (1482명)을 선택했고, 나머지의 선택항목은 ‘추천 이관으로 인해 본인이 계획한 우선순위에 따른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음(856명).’, ‘원하는 강의가 이관되지 않았음(766명).’ ‘한 과목도 추천 이관되지 않았음(685명)’이 각각 그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다수의 학생들이 변경된 수강신청의 폐지와 함께 기존의 수강신청 제도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1) 동일한 등록금을 내고 발생하는 추천이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불공정함, 2) 본인의 계획을 바탕으로 해볼 수 있는 수강신청이 노력이 아닌 운으로 결정된다는 점, 3) 추천의 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 4) 추천으로 전공 필수 등의 꼭 들어야하는 강의의 경쟁률이 이전보다 상승해 졸업이나 취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외로는 ‘장점이 없다’ ‘합리적이지 않다’ ‘실제로 트래픽 감소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 ‘복전, 연전, 융전 등의 수업을 듣기 더 힘들어 졌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4.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 설문조사

2021-1학기부터 시행된 수강신청 50%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에 따라, 테스트 기간 내 학생들의 여석 관련 신청을 반영하여 조정하기 위해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의 중요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 참가

여부를 알아본 후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를 통한 실제 수강신청에서의 여석 배분이 강의에 대한 실제 수요를 반영했는지에 대한 생각과 실제 강의 수요에 맞는 여석 마련을 위해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총 응답 인원은 2241명의 학생이 설문을 참가하였으며 그중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를 참가한 학생으로는 1473명이고,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944명에 대해 실제 강의 수요에 맞는 여석 마련을 위한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1)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 참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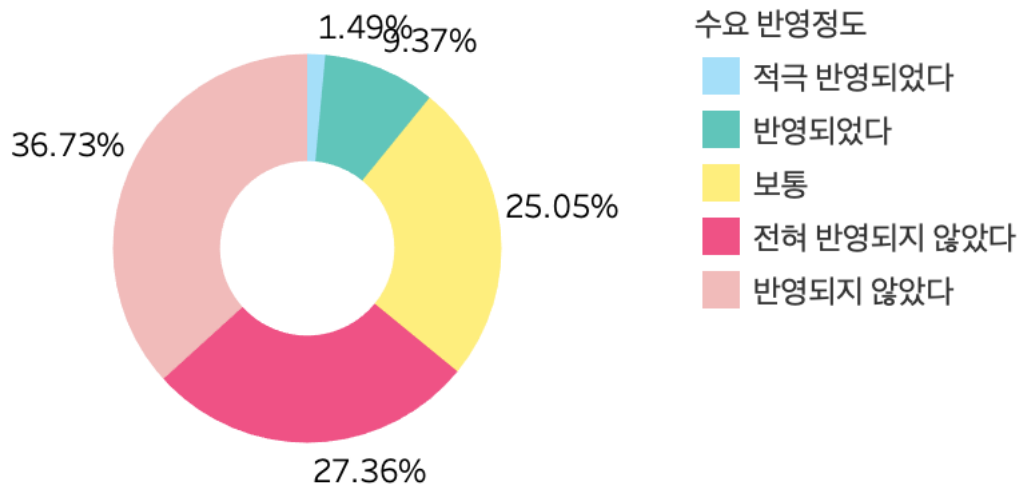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총 참가 인원 : 2,241명

	비율(%)	인원(명)
참가(장바구니 테스트 참여)	65.7	1,473
불참(장바구니 테스트 미참여)	34.27	768

[요약] 총 2,241명의 학생들 중 1473명(65.7%)이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에 참여했다고 응답했습니다.

2) 참가한 경우(1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를 통한 실제 수강신청에서의 여석 배분이 강의에 대한 실제 수요를 반영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총 1,473명)



[설문조사 결과]

총 참가 인원 : 1,473명

	비율(%)	인원(명)
반영되지 않았다	36.73	541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7.36	403
보통	25.05	369

반영되었다	9.37	138
적극 반영되었다	1.49	22

[요약]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반영되지 않았다(541명, 36.7%)’를 선택했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403명, 27.4%)’, ‘보통(369명, 25.1%)’이 각각 그 다음으로 선택된 것을 보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제 수강신청 여석 배분이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138명(9.4%)의 학생들이 ‘반영되었다’와 22명(1.55)의 학생들이 ‘적극 반영되었다’를 선택했습니다.

3)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경우, 실제 강의 수요에 맞는 여석 마련을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설문조사 결과]

‘반영되지 않았다’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를 선택한 944명의 학생들이 실제 강의 수요에 맞는 여석 마련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에 관해 복수 선택이 가능한 문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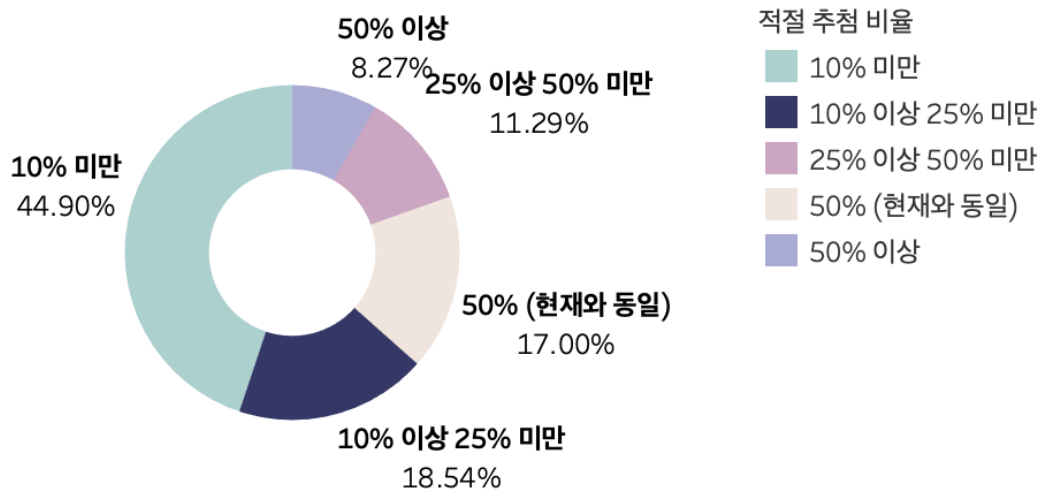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가 아닌 실제 장바구니 담기 결과를 통한 여석 마련’이 87.9%,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 외의 강의 수요 조사 진행’이 31.6%,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 참여율 증대’가 22.1%로 선택되었습니다.

그 밖에 제출된 여러 기타 응답으로는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와 실제 장바구니 둘 다를 통한 여석 조정’,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 의무화’, ‘정정기간 중 여석 통합’,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 결과에 따른 확실한

여석 조정' 등의 응답이 있습니다.

5. 수강신청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 추천 비율 설문조사

1) 귀하가 생각하는 적절한 추천 이관제 추천 비율은 얼마인가요?



기타 응답 제외 응답 1,559 (69.6%)

	비율(%)	인원(명)
10% 미만	31.2	700
10% 이상 25% 미만	12.9	289
50% (현재와 동일)	11.8	265
25% 이상 50% 미만	7.9	176
50% 이상	5.8	129
총계	69.6	1559

기타 응답 682 (30.4%)

	비율(%)	인원(명)
0% (추첨이관제 폐지)	29.3	657
100%	0.002	6
0% 또는 100%	0.002	5
기타	0.006	14
총계	30.4	682

기타 응답 포함 전체 응답 2,241

	비율(%)	인원(명)
10% 미만	31.2	700
10% 이상 25% 미만	12.9	289
50% (현재와 동일)	11.8	265
25% 이상 50% 미만	7.9	176
50% 이상	5.8	129
0% (추첨이관제 폐지)	29.3	657
100%	0.002	6
0% 또는 100%	0.002	5
기타	0.006	14
총계	100	2,241

[요약]

수강신청 50% 추천이관계 설문조사 중 ‘적절한 추천이관계 추천 비율’에 관해 묻는 문항입니다. 기타 응답을 포함하여 총 2,241개(100%)의 응답이 제출되었고, 기타 응답을 제외한 응답은 1,559개(69.6%), 기타 응답은 682개(30.4%)입니다. 해당 문항의 선택지는 ‘10% 미만, 10% 이상 25% 미만, 50% (현재와 동일),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그리고 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 미만’을 선택한 인원은 700명(31.2%), ‘10% 이상 25% 미만’을 선택한 인원은 289명(12.9%), 현재와 동일한 추천 비율인 ‘50%’를 선택한 인원은 265명(11.8%), ‘25% 이상 50% 미만’을 선택한 인원은 176명(7.9%), 그리고 ‘50% 이상’을 선택한 인원은 129명(5.8%)입니다.

이 외에 기타 응답을 제출한 인원 중 추천이관계 폐지에 해당하는 ‘0%’를 응답으로 제출한 인원이 657명(29.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00% 추천’을 응답으로 제출한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0% 또는 100% 둘 중 하나’의 비율로 하길 희망한다는 응답이 5명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제출된 여러 기타 응답으로는 ‘우선 순위를 두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을 확보하도록 다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각 개인에게 추천되는 비율이 같아야 한다’, ‘현재 적은 여석을 충분히 더 늘려주면 좋겠다.’ 등이 있습니다.

2) 1에서 ‘현재보다 낮은 추천 비율(50% 이하) 비율을 선택한 이유

[설문조사 결과]

현재보다 낮은 추천 비율(50% 이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총 1,847개가

제출되었습니다. ‘실제 수강신청에서의 과도한 경쟁’이 65.5%, ‘추첨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낌’이 64%, ‘학내 전반적인 수강신청 구조는 기존 선착순 제도가 더 적합함’이 62.2%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외에 기타 응답으로는 ‘추첨에 과목 개수 제한이 없는 것이 불공정하다’, ‘각 학생의 우선 순위를 반영하지 못한다’, ‘추첨 과정에 있어서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등의 응답이 제출되었습니다.

3) 1에서 ‘현재와 동일한 추첨 비율(50%)을 선택한 이유

[설문조사 결과]

현재와 동일한 추첨 비율(50%)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총 265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수강신청에 있어 수월함을 느낌’이 48.3%, ‘원하던 과목의 추첨 이관으로 만족함’이 49.1%, ‘수강신청에 대한 과도한 경쟁이 줄어들’이 47.9%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기타 응답으로는 ‘추첨이관제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추첨을 한다면 50%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비율을 더 늘린다면 추첨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의 편차가 더 커질 것이다’ ‘현재 추첨이관제로 인한 문제점들이 비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등의 응답이 제출되었습니다.

4) 1에서 ‘현재보다 높은 추첨 비율(50% 이상)을 선택한 이유

[설문조사 결과]

현재보다 높은 추첨 비율(50% 이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총 129개가 제출되었습니다. ‘수강신청에 대한 부담 완화’가 87.6%, ‘경쟁률이 더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44.2%, ‘트래픽 과부하의 우려 감소’가 27.1%로 나타났습니다.

5) 1에서 기타를 선택한 이유

[설문조사 결과]

그 외에 기타 응답으로는 ‘한 과목도 이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비율을 높이는 게 나을 거 같다’, ‘등록금을 내고 듣고 싶은 강의를 못 듣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등의 응답이 제출되었습니다.

6. 기타의견

첨부파일 참조

7. 결론

해당 수강신청제도는 서버를 보호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수강신청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수강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공정함에 대한 근거의 부족은 학생들에게 오히려 수강신청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해당 수강신청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3 - 2) 수강신청 50%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 만족도에서 1,661명의 학우분들이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선택한 것과 3 - 3) 불만족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추천으로 인해 수강신청의 경쟁률이 이전보다 높아짐. (1482명)’을 선택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는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 즉 학교의 시행 목적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추첨으로 인한 수강신청의 과도한 경쟁’, ‘불공정함’ 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수강신청 장바구니 추첨 이관제는 학교 서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수강신청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시행되었지만 그 목적과 다르게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미흡함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하나도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추첨의 비율은 인원별로 동일하게 부여가 되지 않아 어떤 학생은 전부 추첨이 된 반면 다른 학우는 추첨이 하나도 되지 않는 불공정함을 초래했고, 이는 수강신청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들어야하는 강의의 우선순위 역시 고려하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함을 야기했습니다.

두번째로, 수강신청 장바구니 추첨 이관제는 학번의 짝, 홀에 따라 나뉘는 수강신청의 추첨 비율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교의 수강신청은 학번 끝자리 숫자의 짝, 홀에 따라 날짜를 달리 하여 진행되며 수강신청 여석 역시 그에 따라 짝, 홀 각각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신청 장바구니 추첨 이관제가 공정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첨 이관제의 비율을 학번의 짝, 홀로 고려를 하여 올바르게 분배가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강신청 제도의 추첨 비율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과연 공평한 비율을 고려해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특정 과목의 짝수 수강신청에 비해 홀수 수강신청의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 혹은 그 반대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한편, 수강신청 장바구니 추첨 이관제를 도입하게 된 목적 중 하나가 추첨을 통해 희망 과목이 이관됨으로써 수강신청에 대한 학우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었지만, 실제 추첨 이관제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수강신청에 대한 학우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석의 50%를 추첨을 진행하고, 추첨이 되지 않은 학우들은 절반밖에 남지 않은 여석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추첨 이관제 도입 이전에 비해 수강신청 경쟁률이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수강신청 경쟁률의

상승은 학우들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 각 학우마다 추천 이관이 되는 특정 비율이 있는지, 추천 이관의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된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한 학우들의 의문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학우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도입한 추천 이관제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 하고, 오히려 목적과는 반대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 이관제 도입으로 모든 과목이 추천 이관되어 별도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우들이 있는 반면, 단 한 과목도 추천되지 않은 학우들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강신청에 있어서 학우들 간 격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우들 간 격차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추천 이관 가능한 과목의 수를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추천 이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강신청 당일 트래픽 과부하를 방지하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추천 이관제 도입 이전에 비해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수강신청 당일 두 과목 이상을 신청해야 하는 학우들의 경우 한 과목 신청에 실패하게 되면 늘어나는 대기 시간으로 인해 나머지 과목들도 모두 신청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학우들은 트래픽 과부하 문제 해결에 대해 크게 체감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추천 이관제에 불만족하는 이유중 하나로, 추천 이관제에서 추천이 되는 비율에 관한 공정성 부분을 빠트릴 수 없습니다. ‘이관되지 않은 과목은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여석의 50%를 추천하여 이관한다’는 말은 언뜻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하게 나눠서 과목들이 이관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의 설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강하려는 과목 중 한 개도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이번 수강신청에서는 추천 이관이 되었지만, 다음 수강신청에 추천 이관이 되지 않는다면 추천 이관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설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는 희망 과목이 모두 이관되고, 누구는 한 과목도 이관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아, 추천 이관이 되는 비율에 대한 공정성 또한 의심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추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천 이관제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신청 추천 이관제를 시행함으로써 과목을 사고 파는 현상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전 수강신청제도의 경우에도, 선착순으로 신청을 진행하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기 많은 수업에 대해 수강신청을 성공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지만 인기 많은 수업을 수강신청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파는 행위가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직접 수강신청에 참여를 함으로써 팔려고 하는 사람도 수강신청에 성공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으나, 변경된 추천 이관제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제조건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장바구니 기간 동안, 자신의 장바구니에 담아두기만 하면, 해당 과목 학생 수의 50%의 확률로 추천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심지어, 한 과목만 담는 것이 아닌 적게는 19학점에서 많게는 22학점까지 채워 담을 수 있어, 이러한 사람들이 과목을 팔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실제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쟁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진짜로 해당 과목 수강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해당 수강신청제도 도입 이전 진행하였던 ‘수강신청 장바구니 추천 이관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와 달리 실제 수강신청 이후에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에 대한 실제 수요 반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 - 2) 참가한 경우(1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를 통한 실제 수강신청에서의 여석 배분이 강의에 대한 실제 수요를 반영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에서 ‘반영되지 않았다’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를 선택한 인원이 64.09% 로 실질적으로 여석 조정을 체감하지 못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수강신청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에 참여한 인원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 여석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통해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 또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석이 감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이후 실제 수강신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를 통해 여석 결정을 진행할 때에는 장바구니 여석을 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여석을 증감시키고,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장바구니 테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 또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강신청 장바구니 추첨 이관 제도의 폐지 혹은 추첨 비율의 축소의 검토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학교 본부의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총학생회 '오늘'